새로운 소재 개발 '봇물'

2003년 한국 영화 기상도

글 _ 유승찬 영화평론가 · 월간 스크린 편집국장

지난해 한국 영화 관객수는 1973년 이후 최고치인 1억 800만 명으로 공식 집계됐다. 영화 개봉 편수도 전년에 비해 25편이 늘어난 77편으로 집계됐다. 한국 영화 시장 점유율은 무려 46.7%로 50%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한국 영화산업은 외형 면에서 지칠 줄 모르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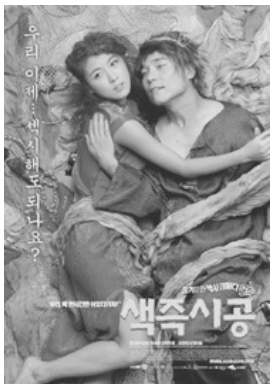
이 같은 상승세는 올해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물론 관객수의 폭발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약 500억원의 손실을 본 수익률 악화로 인해 일부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긴 하지만, 기왕에 투자된 프로젝트와 〈가문의 영광〉 〈몽정기〉 〈색즉시공〉으로 이어진 하반기 흥행 호조를 바탕으로 제작투자 분위기도 조금씩 살아나는 추세다. 게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인수합병을 통한 거대 메이저의 출현이 예상되고 있어 한국 영화산업은 극장 매출 1조원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구조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거대 메이저의 출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거대 메이저의 출현이 영화산업의 확대 속도를 가속화시킬 것임은 분명하다.

2003년에 제작될 한국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한마디로 '특징이 없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장르의 쏠림 현상이 적고 다양한 영화들이 기획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화제작 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가장 큰 트렌드였던 한국형 블록버스터에 대한 기대감이 잦아들면서, 영화 제작자들이 어떤 유행이나 제작 사이즈보다는 관객에게 호소할 수 있는 영화의 내용에 더욱 중점을 두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을 비롯한 지난해 대형사고의 후유증은 영화제작에 대한 투자자들의 판단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었고, 작지만 알찬 영화에 대한 관심의 폭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어떤 장르든 코믹 요소에 대한 집착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코믹 요소가 강한 작품이 성공한다는 경험에서 비롯된 것인데, 앞으로 충무로는 액션 장르이든 멜로 장르이든 드라마 장르이든 장르를 불문하고 관객의 웃음을 끌어내기 위한 일대 전쟁을 벌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역도산〉 〈실미도〉 등 다양한 전기 · 역사물 기획

가장 눈에 띄는 2003년의 한국 영화 경향은 역사적 사









〈색즉시공〉은 한동안 위축되었던 제작투자 분위기를 살려낸 흥행작이다. 올해도 한국 영화는 형사와 조폭을 다룬 코믹 액션(〈살인의 추억〉), 눈물샘을 자극하는 최루성 영화(〈하늘정원〉), 텔레비전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공포(〈4인용 식탁〉) 등 다양한 장르가 제작되고 있다

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소재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마련한 충무로의 새 돌파구이다. 지난해 임권택 감독의 〈취화선〉이 장승업의 생애를 그려내 칸 영화제 감독상을 거머쥐었고, 곽경택 감독은 비운의 복서 김득구의 승부세계를 그린 〈챔피언〉을 연출한 바 있다.

올해는 〈파이란〉으로 잘 알려진 송해성 감독이 〈역도산〉을 준비 중이다. 싸이더스가 제작하는 〈역도산〉은 일본에서 천황 다음으로 잘 알려져 있다는 프로 레슬러 역도산(한국 이름 김신락)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조명할 계획이다. 송해성 감독은 "영웅 역도산보다는 천하의 난봉꾼이며 언제나 분노에 가득 찬 얼굴을 지녔던 인간 역도산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역도산 역으로는 설경구가 일순위 캐스팅 대상에 올라 있다. 설경구가 역도산 역을 소화하려면 적어도 30kg 이상 체중을 불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비슷한 프로젝트로는 '시라소니'로 알려진 이성순의 삶을 그린 〈조선의 주먹〉을 꼽을 수 있다. 드라마 〈야인시대〉의 폭발적 흥행을 등에 업고 프로젝트에 활기를 띠고 있는 〈조선의 주먹〉은 〈화산고〉의 김태균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다. 또 1950년대 소문난 주먹이었으며 '명동 사보이호텔 사건'으로 유명한 건달 신상사에 관한 영화인 〈명동 신상사〉는 〈몽정기〉의 정초신 감독의 차기 프로젝트다. 프로야구 초창기 '삼미 슈퍼스타즈'의 패전처리용 투수 감사용의 삶을 그린 〈슈퍼스타 감사용〉 프로젝트도 기획 단계에 있다.

한편 강우석 감독의 〈실미도〉는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삼은 영화다. 콜럼비아 트라이스타가 전액 투자 및 세계 배급을 맡기로 한 이 영화는 100억원이 훨씬 넘는 제작비가 투여되는 한국형 블록버스터다. 북파 공작원들의 청와대 진격사건을 다룬 소설 〈실미도〉가 그 원작으로, 분단 한국사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다는 점에서 사뭇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강제규 감독의 〈태극기 휘날리며〉는 한국전쟁을 정면에서 다룬다. 한국전쟁 당시 적으로 서로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눠야 했던 형제의 가슴아픈 사연을 기본 드라마 트루기로 하는 영화다.

영화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언제나 영화 자체의 완성도이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제작,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기초를 만드는 것이 산업화 단계의 한국 영화산업이 해야 할 첫번째 일이다.

〈쉬리〉 이후 오랫동안 연출 활동을 접었던 강제규 감독이 내놓는 회심의 프로젝트로 현재 장동건과 원빈이 캐스팅된 상태다.

명필름이 준비하고 있는 〈아리랑〉은 시대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시대 중국에서 활동한 전설적인 공산주의 운동가 김산의 생애를 다룬 님 웨일즈의 〈아리랑〉이 영화의 원작이다. 정지영 감독이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다. 100% 중국 현지 로케이션과 거대한 제작비가 드는 프로젝트로, 한국 역사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어떻게 묘사할지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여러 역사물이 기획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영화가 소재의 빈곤을 극복하고 역사적 현실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으로 일단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인조반정이 일어났던 17세기, 엘리트 무관 양성소인 청풍명월의 두 무사가 정치적 소용돌이에 말려드는 과정을 그린 김의석 감독의 〈청풍명월〉에는 터프가이 최민수와 조재현이 캐스팅된 상태다. 이재용 감독의 세번째 영화 〈스캔들 – 조선시대 남녀상열지사〉는 영화 〈위험한 관계〉를 정조시대에 대입시킨 프로젝트로, 이미숙 · 전도연 · 배용준 등 톱스타들을 캐스팅했다. 신라시대의 사랑을 그린 〈천년호〉는 현재 한창 촬영 중이며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황산벌〉은 신라와 백제의 전쟁을 호방하게 그려낼 것으로 보인다.

형사와 조폭을 다룬 코믹 액션은 한국 영화 흥행의 보증수표다. 올해에도 이 같은 프로젝트는 끊임없이 기획, 제작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폭 마누라 2〉가 준비 중이며, 지하철 스피드 액션을 표방한 〈튜브〉는 촬영이 끝난 상태에서 개봉일을 잡고 있다. 전직 국가 기밀요원인 기택(박상민)과 소매치기인 인경(배두나), 그리고 장형사(김석훈)가 출연했다. 김성홍 감독의 〈스턴트맨〉은 연인을 구하려는 스턴트맨과 한 형사가 범죄조직에 맞서는 이야기이며, 〈살인의 추억〉은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다룬 영화다. 〈플란다스의 개〉를 만들어 호평을 받았던 봉준호 감독이 메가폰을 쥐었다. 〈약속〉 이후 오랜만에 현장에 돌아온 김유진 감독의 〈와일드 카드〉는 강력반 형사 영달(장진영)과 죄수(양동근)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김지훈 감독의 〈목포는 항구다〉는 제목만으로도 조폭영화임을 알 수 있는 작품이고, 조직 보스와 형사의 좌충우돌 코미디를 그린 〈언더커버〉도 기획 중이다.

흥행 안전판 최루성 멜로도 성업 중

이와 함께 한국 영화의 대표 장르라 할 수 있는 멜로 영화와 로맨틱 코미디도 단연 활기를 띠고 있다. 이미 박광춘 감독이 연출하고 조인성 · 신민아가 주연으로 출

연한 〈마들렌〉과 손예진 · 조인성 · 조승우가 주연하고 〈엽기적인 그녀〉의 곽재용 감독이 연출한 〈클래식〉도 개봉됐다. 손예진이 엄마와 딸이라는 어려운 1인 2역을 맡았는데, 대체로 무난하게 소화해 냈다는 평가다. 김하인의 베스트셀러 〈국화꽃 향기〉를 영화화한 〈국화꽃 향기〉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여인 희재(장진영)와 평생 그녀만을 사랑한 남자 인하(박해일)의 로맨스를 담고 있는 영화다. 〈편지〉류의 최루성 멜로라고 볼 수 있다. 안재욱 · 이은주가 주연을 맡은 〈하늘정원〉은 호스피스 병동의 의사와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사랑을 다룬 영화다. 창백한 영주의 얼굴에서 비극적인 느낌을 읽은 의사가 그녀의 마지막 동반자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영화는 걷잡을 수 없는 눈물샘을 자극하기 시작한다. 〈간첩 리철진〉 이후 처음으로 유오성과 박진희가 재회한 〈별〉은 주변 인물의 죽음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확인해 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 이 밖에 김정은 · 김민종이 주연을 맡은 영화 〈나비〉는 암흑가 남자와 거리의 여자가 된 첫사랑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지난해 〈폰〉의 성공 이후 공포영화 기획도 줄을 잇고 있다. 영화가 텔레비전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르가 공포영화다. 〈4인용 식탁〉은 전지현이 청춘 스타의 이미지를 벗고 가정주부를 맡아 화제가 된 영화다. 상대역 박신양은 귀신을 보는 능력을 가진 남자로 출연한다. 지하철에서 버려진 여자아이의 영혼을 보게 된 뒤 주변에 어른거리는 영혼의 흔적 때문에 고통받는 박신양이 신경쇠약 증세에 시달리다가 정신병원에서 우연히 전지현을 만나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 〈내추럴 시티〉의 유지태가 선택한 영화 〈거울 속으로〉는 공간의 공포를 주제로 한 영화다. 최근에 감우성을 주연으로 캐스팅한 영화 〈R포인트〉는 실종 병사를 찾기 위해 파견된 군인들이 R포인트라는 미스터리 지역에 가면서 겪게 되는 과정을 그렸다. 〈링〉의 김동빈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김지운 감독의 〈장화, 홍련〉은 고전 설화를 기초로 한 공포영화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 근무 중인 경찰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 동생의 사진을 내밀며 찾아달라고 말한다. 하지만 사진 속 여자는 신원미상이고, 수사를 해나가면서 그들 자매의 심상치 않은 과거사를 알게 된다. 이 밖에 〈여고괴담 세번째 이야기〉가 준비 중이고, 정지우 감독은 집안 대대로 이어지는 업보에 관한 얘기를 그린 〈두 사람이다〉를 준비하고 있다.

준비 중인 영화가 어떤 형태로 완성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프로젝트가 기발하다고 해서 꼭 좋은 영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눈치챌 수 있는 지점은 있다. 그것은 감독이나 배우의 이미지가 아니라 컨셉이다. 지난해 흥행 영화들을 보면 대부분 제목에 영화의 컨셉이 드러난 경우가 많았다. 가령, 〈색즉시공〉이라든가 〈가문의 영광〉 〈폰〉 〈몽정기〉 〈해적, 디스코왕 되다〉 같은 작품이 그것이다. 이는 관객들의 영화관람 행태조사에서도 나타났는데, 관객들의 60% 이상이 배우나 감독이 아니라 그 작품이 주는 느낌으로 영화를 선택한다고 답한 것이다.

2003년에는 어떤 영화가 울고 웃을까. 또 한국 영화는 그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주변 환경의 빠른 변화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언제나 영화 자체의 완성도일 것이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제작,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기초를 만드는 일이 산업화 단계의 한국 영화산업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